



미래 계발

설교

파트 2 - 주께 감사 드립니다...

2015 세계 선교 기금을 위한 감사 헌금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시편 22:30 하



나사렛교회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시편 22:30 하)

시편 100

감사의 시

¹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²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³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⁵ 여호와를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구약 시대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는 일은 먼지 나는 먼 길을 기대와 흥분 속에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행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무한하고, 그분의 자비가 모든 세대에 걸쳐 영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저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로 인해 감사합니다. 설교는 제 소명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 보다 더 다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으시기에 감사합니다.
- 실수할 때 조차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휴대폰을 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자동차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가 구식이라 감사합니다.
- 제 아내나 아이들이 해주는 포옹과 뽀뽀가 제 몸무게를 늘어나게 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저를 살찌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합니다).
-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자신들의 영적 역사를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신실하게 보여 주신 역사를 되뇌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감사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감사의 시에 보면 초점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이 성전 문을 통과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들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나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래 걸었기에 그들은 아마도 다리가 지쳐있었고 발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들은 실망과 죽음, 상실, 아픔, 고통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하심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들은 영감을 얻고, 고양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1. 우리의 순례의 길 또는 간증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모든 날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는 주님 자신이 주신 은혜의 양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두드러지는 이야기는 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욥이 당한 고통을 통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욥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욥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양 7,000 마리, 낙타 3,000 마리, 소 500 겨리,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욥이 온전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욥 1:1).

그런데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단지 가축뿐 아니라 가족도 잃습니다. 욥을 슬퍼하며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21). 욥은 처참한 상실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욥 2:8).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욥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건강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대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영웅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었지만 힘이 약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이어지는 25 장에 걸쳐 그의 삶의 환경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폭풍의 음성으로 다시 장면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권세에 대해 능력 있게 되새겨 주십니다. 욥은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 42:2 상, 42:6). 욥기는 하나님이 욥을 다시 복 주셔서 그가 전에 가졌던 복의 두 배를 주셨다고 하며 끝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들 일곱과 딸 셋도 더 주셨습니다.

우리는 욥의 긴 이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고통 중에도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욥이 그렇게 요구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손을 그에게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일이 잘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처한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우리의 가족, 친구, 교회, 관계들 즉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오래 전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도움과 인도, 사랑을 준 강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그들과의 교제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3).

여러분이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걸음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3. 삶이 쉬운 것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집과, 침대, 음식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편안함과 더불어 때때로 삶이 그리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삶에서 가장 힘든 일들이 가장 높은 성취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 된지 몇 년 안 되는 젊은 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을 지을 여유가 있을 정도로 부흥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작았지만 아름다웠고 예배 드리기에 좋았습니다. 새 건물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 희생과 약간의 독특한 경험도 필요했습니다. 초기의 예배 공간 중 하나는 토요일 밤에 지역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곳으로 세를 준 곳에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몇 사람은 일찍 와서 휴지를 치우고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돈해야 했습니다. 새 건물이 세워지자 어떤 성도는 “다른 건물에서 세를 살았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태도는 정 반대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요. “옛날의 좋은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주일 아침에 해야 하는 일은 휴지를 줍는 것이 전부였죠. 참 복 받은 날들이었어요!”

우리는 나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주님께서 나쁜 일도 좋게 바꿔 주실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할 모든 이유 중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 천국의 문을 여신 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신다면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5. 미래를 위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나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나 감사합니다.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편 22:30 하) 우리는 감사에 대해 증거해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 가수가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빛이어야 한다”고 노래한 것처럼 말입니다.¹

미래를 계발하기 위한 한 방법은 세계 선교 기금을 위해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의 사역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이르고 전 세계에 이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니 얼마나 귀중한 헌금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복을 받은 풍성함으로 인해 드립니다.

결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반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기는 참 쉽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말들은 좋은 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이 잘될 때나 어려운 상황에서나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말씀이 현실로 경험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6).

¹ 4Him, “미래 세대를 위하여(For Future Generations)”, 1994, INO 레코드